

□ 싱가포르 소비동향

○ 정부는 “건강을 위한 과일 섭취” 캠페인을 통하여, 과일 섭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하고 있음. 정부의 건강증진청 (Health Promotion Board)에서는 “건강증진” 홍보에서 다양한 청과류 중에 사과, 배 등을 가장 먼저 언급하여 사과에 대한 인식이 높음.

○ 싱가포르의 과일가게들은 과일을 미리 깎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과일 섭취가 가능함. 싱가포르 쇼핑몰 내 위치한 Food Junction, 호커센터, 지하철 등에서 쉽게 Fruit stalls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현지인의 50%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한번씩은 과일을 쉽게 구매해 그 자리에서 먹는 편임. 더불어, 일부 학교에서는 깎아놓은 과일을 판매하는 자판기는 2009년 처음 설치된 이래로 현재 많은 학교에 설치되 학생들이 과일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. (The Strait Times, 009-04-10, Fruit machines a hit with kids).

○ 싱가포르의 과일가게들은 과일을 미리 깎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과일 섭취가 가능함. 싱가포르 쇼핑몰 내 위치한 Food Junction, 호커센터, 지하철 등에서 쉽게 Fruit stalls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현지인의 50%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과일을 쉽게 구매해 그 자리에서 먹는 편임. 더불어, 일부 학교에서는 깎아놓은 과일을 판매하는 자판기는 2009년 처음 설치된 이래로 현재 많은 학교에 설치되 학생들이 과일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.

○ 신선 과일 뿐 아니라, 과일 주스 역시 현지인들이 식후 즐겨 먹는 음료로 다양한 과일주스를 파는 상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

○ 싱가포르는 주로 저렴하고 쉽게 조달이 가능한 열대성 과일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짐.

싱가포르의 1인당 과일 섭취량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.

○ 싱가포르 사과 소비량

<2011년도 싱가포르 사과 소비량>

년 도	소비량 (MT)	성장률
2002	50200	
2003	44900	-10.56%
2004	44400	-1.11%
2005	44200	-0.45%
2006	45800	3.62%
2007	45500	-0.66%
2008	47800	5.05%
2009	48500	1.46%
2010	45300	-6.60%
2011	45000	-0.66%

출처: AVA (2013.1.18)